

공감과 대중음악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현식*, 조대선**
*중앙대 예술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kimgoon610@naver.com
**e-mail: entheos@chungwoon.ac.kr

Relation between empathy and popular music

Hyun-Sik Kim*,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AU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현대 사회에서는 공감에 관한 관심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다른 대상을 이해하고 아는 것의 모습보다 같이 느끼고 감정을 공유하는 감정이 발전된 모습으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공감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뉘지며,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 좀 더 다양하게 나누어지기도 한다. 공감은 심리학적인 방향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서도 조명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공감의 기본 개념을 연구하고 공감의 현상을 연구 및 비교하여 공감의 정의와 공감과 대중음악 관계를 중점으로 공감에 대한 연구 및 비교를 진행 했다.

1. 서 론

현대 사회에는 공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공감은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동조나 합의의 의미를 넘어서 학문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소통이 폭 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여러 매체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많은 심리적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공감이라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소통으로 인하여 공감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의 공감이 아닌 변질되고 모순적으로 공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사회에서의 공감능력은 점점 부재되어 가고 있다. 공감의 부재는 곧 사회적으로 문제가 보여지고 있으며 공감의 기본적인 개념인 역지사지의 모습이 부족한 현상이다. 이러한 부족한 공감능력으로

많은 사회적 사고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공감은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기에 공감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감의 정의와 공감에서 만들어지는 공감의 종류를 연구하고 공감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현대 사회의 기본적 현상을 살펴봄, 그중 공감과 음악이라는 중점을 두고 서로의 상관관계 및 특징을 연구 및 비교한다.

2. 본 론

본 논문에서는 공감의 개념과 기존 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음악과 공감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공감 능력과 음악의 상관관계를 연구 및 분석을 진행 했다. 또한 공감의 능력이 음악의 표현 및 해석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 대

중음악에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는지 연구, 비교를 진행한다.

2-1 공감의 개념

공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감은 말 그대로 “공유된 감정” 으로 본인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여도 타인의 감정을 비슷하게 느끼는 현상이다. 공감으로 표기되는 ‘Empathy’의 어원은 1873년 독일학자 피셔 (R. Vischer) 가 처음 사용한 독일어 ‘Einfühlung’ 에서 파생되었다. 이 단어를 해석하면 ‘감정을 불어 넣다’라는 뜻으로 심리학 방법론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공감의 연구는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에서 시작하였고 인간의 지닌 도덕성 사회성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도덕성을 논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의 시작이다. 현대의 공감이란 정의는 계몽주의의 도덕론만이 아니라 뇌의학, 인지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양하게 확장되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내에서는 공감의 정의를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나 조건과 일치하는 것’ 이라는 정의하고 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받아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공감은 어떠한 상황을 자기의 상황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은 크게 두 가지의 요소로 나누어진다. 인지적 정서적으로 나누어지며 더 큰 모습으로 보면 의사소통적인 요소 또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감 및 감정의 종류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2-2 인지적 공감

인지적 공감은 공감적 정서와 행동을 불어 일으키

는 지적인 작용이다. 인지적 공감을 설명 할 수 있는 개념들로는 관점 수용, 감정의 재인, 탈 중심화, 상상력 등, 이러한 용어들이다. 대표적인 학자 미드는 타인의 역할에 들어가 역할을 수행에 보는 경험을 강조하였다. 결국 역할 수용이라는 개념을 강조한 것이다. 다른 학자 피아제는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식별해내는 탈 중심화를 강조하였다. 이 개념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탈 중심적 사고로 변화하면서 공감능력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물론 이것이 공감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연구적 제한을 말하기도 했다.

데이비스는 인지적 공감의 요소로 상상력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곧 관점 수용으로 표현하였다.

관점 수용이란,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이 무엇인지 판단한 뒤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타인을 도와주거나 협력을 하는 친 사회적인 모습이며 도덕ური 개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상상력은 허구적인 상황을 상상하고 그 상황을 자신의 머리로 느낌을 생각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인지적 공감은 인지 과정에서 지적인 추리와 상상력이 발휘되어 본인의 관점을 다른 인의 관점으로 이동되는 작용이다.

2-3 정서적 공감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과 비슷하거나 같은 감정 상태를 가지는 것이다. 정서적 공감 반응은 다른 사람과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100% 일치하는 감정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의 정도를 느끼게 되는 감정 이다. 이러한 정서적 공감을 정서 감염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허구의 상황이나 다른 상황을 다른 사람과 본인을 일치 하게 만들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고 공유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정서 감염의 한 상태로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거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따라 웃는 상태는 동작 모방이라고 말한다. 정서적 공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반응하는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의 감정을 대리로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3. 결론

공감은 결국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상태이나 감정을 다시 기억해내는 능력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감정의 기억하는 현상을 가지고 그대로 그 감정의 수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감은 개인적인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공감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막스 셸러는 ‘공감은 이성적 판단이 아닌 정서적 교감을 중요시하는 감정적 성찰’ 이라고 말하였듯이 이분법적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으로 볼 때 대중음악은 공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음악은 다른 예술 분야보다 감정과 감성에 의존적이다. 청취를 통하여서 많은 감성을 전달하는 음악은 조금 더 많은 공감능력의 사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한 공감의 여러 종류를 통해서 청취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으며, 감정 이입을 통하여 연민이나 동정심을 느낄 수 있다. 공감은 외부의 존재 없이 자발적으로 직접적으로 행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과 음악적 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이다. 어떠한 공감적 자극을 통하여 본인의 기억이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을 포함한 모든 예술 작품이 개인적 표현이다.

대중음악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대중이 원하는 공감을 표현해야 한다. 공감은 대중적인 아닌 개인적인 효과이지만 대중음악을 통한 공감의 감성을 전달 받고 상상하는 것이 대중음악으로서 사랑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공감의 정의로 계산하여 음악을 제작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분은 공감적 요소를 생각하며 작업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대중은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음악에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 사랑과 이별 노래를 통해 지난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고 추억하며 위로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능력으로 인하여 대중음악의 대부분의 감성을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 지고 있으며 인기음악 차트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같은 것을 공감하며 회상하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공감능력은 이렇게 중요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음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공감에 관한 많은 학술적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대중음악 종사자나 대중음악에 관한 공감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공감능력과 대중음악에 대학 상관관계는 확

실히 밀접한 모습이다. 많은 대중예술의 모습과 공감에 관한 연관성을 추후 연구를 해야 좀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해야 대중음악과 비교하여 좀 더 폭넓은 연구가 가능할 듯 보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대중음악과 공감능력의 상관관계를 더욱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김현식, 대중음악활동이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공연영상학과 석사 학위 논문
- [2] 황태연,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1
- [3]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 [4] 우혜연, 음악 수용에서의 공감, 음악과 민족 제 50호
- [5] 백광균, 막스 셸러의 공감이론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학위 논문